

# 한국교회 성장과정에 나타난 ‘자신학 부재 원인과 현상 관찰

장창수 선교사 (WEC 국제선교동원 R&D)

## 들어가며

2016 년 서울대 이정동 교수는 저서 ‘축적의 길’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 하면서 한국인들은 ‘실행 역량’은 뛰어나지만 ‘개념 설계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sup>1</sup>. 서울에 세워진 세계 6 위 높이의 초고층 건물은 한국의 건축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정작 그 속사정은 달랐다. 초고층 빌딩 건축의 핵심영역인 건축설계, 토목설계, 구조설계, 풍동설계 를 모두 미국 영국 캐나다 회사가 각각 맡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설계도를 따라서 국내 건설사는 시공 만을 진행했다.<sup>2</sup> 건축물의 시공 능력 즉 실행역량은 이미 세계적 이지만 설계 능력 즉 개념설계 역량은 세계적 수준이 아직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 개념설계 역량의 시대

과거 한국 전쟁 이후 근 현대 한국 사회의 궤적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실행 역량’이 얼마나 짧은 기간 국난을 차례로 극복하고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며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쌓아 가는데 기여 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은 세계역사에서 보기 드문 짧은 시간 안에 전쟁 피해를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거쳐 이제는 경제 규모 세계 10 위에

---

<sup>1</sup> 이정동 ‘축적의 길’ 2006

<sup>2</sup> 조선비즈 ‘한국 最高 건축에 ‘한국 기술’은 없다’ 2016 년 4 월 19 일

위치하며 IMF, World Bank 등 국제 기구들이 제시하는 선진국 지위를 의미하는 모든 항목을 충족한 나라가 되었다.<sup>3</sup>

그럼에도 한국이 이러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역량이 바로 ‘개념설계 역량’이다. 개념설계 역량은 밑그림을 그리는 능력이다.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고 이것이 모든 제품 생산과 서비스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설계역량이 부족함에도 그대로 발전시키지 못할 경우 생산자는 늘 많은 비용을 개념 설계자에게 지불하고 그것을 가져다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발전도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늘 종속적이고 모호한 역할로만 남게 된다.

## 개념설계 역량과 자신학

한국 교회는 가파른 경제성장의 곡선을 따라 한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다. 한국 개신교 역사는 150 년도 채 되지 않고 더우기 그 짧은 역사 가운데 36 년간의 일본 식민지 지배와 전국토가 폐허가 된 3 년간의 한국전쟁까지 경험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이후 보여준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의 성장은 가히 세계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최근 한국 개신교 기독교의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 이지 못하다. 대내적으로는 교회성장의 정체, 사회적 영향력 감소로 대외적으로 급격한 선교사역의 정체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 기독교는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지적하는 글과 소리는 많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성경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원인들을 잘 정리한 것들도 많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사한 또 하나 보태기 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한국교회가 왜 전환의 시기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변화의 요구에 실제로 잘 응대하지 못하는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

---

<sup>3</sup> [https://ko.wikipedia.org/wiki/선진국#선진국의\\_분류\\_지표](https://ko.wikipedia.org/wiki/선진국#선진국의_분류_지표)

앞서 언급한 이정동 교수의 진단을 떠올려 보면 한국사회는 실행역량은 뛰어났지만 개념설계 역량은 부족해서 그동안 빠르게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맞는 변화와 전환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진단은 비단 한국 일반 사회만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에도 매우 중요한 성찰을 제공한다. 한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형성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신학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것이 개념설계 역량이라면 그 신학을 기초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실행역량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

신앙활동의 열정과 열심은 전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부족함이 없다. 새벽예배와 주중 주일 예배 그리고 다양한 훈련 교육 프로그램과 교회 안밖으로 펼쳐지는 많은 봉사활동과 선교의 현장까지 한국의 교인들은 참 열심히도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사역들을 이끌어 가는 국내 해외 사역자들도 실행역량을 바탕으로 쉴새 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념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한 신학형성 과정은 어떤가?

신학은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가 전해지고 수용되며 형성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신학형성 과정에는 성경이 읽히고 가르쳐지는 환경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성경은 전세계 개신교 공동체 어디서나 동일하지만 환경은 다양하다. 바로 이점에서 '자신학화 (Self-theologizing)' 라는 이슈가 등장 하며 여기에는 개념설계 역량이 요구된다.

## **복음과 자신학화**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신앙의 기초와 기준이 되는 과정에서 성경은 해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히 문자적 해석 과정 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환경도 해석 과정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폴 히버트 (Paul Hierbert)가 말하는 모든 환경을 포용하는 보편신학 (Universal Theology) 또는 초문화적 신학

(Supracultural)의 영역은 존재하는데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sup>4</sup> 복음에 대한 이해가 시대마다 상황마다 차이가 있지만 복음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사실 우리가 자신학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결국 복음을 더욱 잘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다.<sup>5</sup> 복음이 개인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복음의 상황화'라고 했을 때 이러한 상황화는 행동양식에서 나타나 가치체계를 거쳐 세계관에 까지 영향을 주어야 한다. 행동양식에 잠시 변화가 있어도 가치체계와 세계관에 복음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행동양식은 본질과 무관한 형식으로 남던가 세계관의 지속적인 영향아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치체계와 세계관에 까지 미치지 못하면 기독교는 많은 문화권에서 여전히 그렇듯이 '외래종교'로 계속해서 인식되게 된다.<sup>6</sup>

## 한국 자신학 부재의 원인과 현상

### 1. 삼자선교와 서구신학 유입

한국 교회는 잘 알려진 대로 네비우스(J. Nevius)의 삼자(三自) 선교 정책(자립, 자전, 자치)을 통해 세워진 모범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 결과 세계 선교 역사에서 드물게 상당히 자율적이며 토착적인 교회로서 세워졌다. 단적으로 1925년 당시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인 J.R.Mott의 방문을 계기로 외국인 대표 31명과 한국인 대표 31명이 참석한 조선 기독교 지도자 간담회에서 한석진 목사가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룩한 업적은 높이 평가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교회도 스스로 설만큼 되었으니 이제 선교사들은 한국교회는 한국인들에게 맡기고 아직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는 다른 나라로 가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sup>7</sup>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일화는 당시 한국 교회가 짧은 기독교 역사와 식민지 지배라는 환경에서도 삼자 선교

<sup>4</sup> 안점식 한국교회 자신학화 (Self-theologizing)의 방향 모색 현대선교 15 (Krim)

<sup>5</sup> 안점식 p 11 안점식 교수는 건강한 자신학화를 위해 상황화에 대해 먼저 언급하며 복음주의에서의 상황화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음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 사회 상황을 고려하고, 이를 보다 성경적으로 변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sup>6</sup> 안점식 pp 8-9

<sup>7</sup> 이덕주 '나라의 독립 교회의 독립: 한국기독교 선구자 한석진 목사의 생애와 사상'

정책을 따라서 얼마나 당당하게 스스로 서고자 했는지 보여준다. 이에 앞서 1907 년 독노회가 창립된 이후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도 교단 창립을 기념하는 일환으로 제주에 선교사를 파송 하였고 1912년에는 장로교 총회를 창립 하면서 중국 산동에 선교사를 파송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 하였는데 이때에도 정책 결정과 재정 및 사역 운용에 한국교회는 매우 주도적 이었다.<sup>8</sup>

하지만 이후 현대 선교를 진단하며 폴 히버트(P. G. Hiebert)는 이러한 삼자 원리에 자신학화(自神學化)의 원리를 더한 4자 (자립 자전 자치 자신학)를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토착적이며 자율적인 진정한 자생력을 가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은 자신학화 라는 길을 다함께 걷기 보다는 신학계의 주도권을 잡게된 서구 유학파들의 영향력이 확장 되면서 서구 신학을 중심으로 주요 교단들이 형성되는 길로 향하게 되었다.<sup>9</sup>

그리고 한국 전쟁이후 근 현대 한국 교회 성장 과정에서도 복음주의 진영을 대변하는 주류 교단 들의 신학교육 내용도 목회활동 방식에도 앞서 1930년대 외국 유학파들의 신학을 근간으로 한 서구 신학이 그 바탕이 되었고 서구신학이 곧 보편신학과 동일시되어 다른 지역신학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어졌고 오히려 이러한 지역신학의 시도 자체가 정통에서 벗어나는 위험한 시도로 인식되었다<sup>10</sup>. 교계에 다양한 리더들도 대부분 서구신학 수용자 들로 채워지면서 주체적인 교회 형성의 마지막 단추인 ‘자신학화’ 과정은 서구 신학이 여과없이 우리 신학이 되고 보편 신학이 되는 과정에서 소수 신학자와 교회들의 시도 로만 남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자신학의 기회는 제한 받게 되었다.

## 2. 한국 유교적 샤머니즘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과 교회

기독교가 처음 한국 사회에 전파 되었을 때 사회 문화적으로 유교문화가 종교적으로 샤머니즘이 한국인들의 행동양식과 가치체계 그리고 세계관까지 깊숙이 자리하고

---

<sup>8</sup> 변창욱 (2007)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 선교와 신학,19, 13-65

<sup>9</sup> 문상철 (2014) 한국 선교학 포럼 (KRIM) 발제문 ‘자신학화’ 문상철 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신학을 서구에서 배워 국내 사역이나 선교현장에서 번역, 적용하는데 만족한다면 의존심의 표현이며 우리는 신학적으로 의존적(dependent)이어서도, 독립적(independent)이어서도 안되며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p>10</sup> 안점식 p 15

있었다. 손봉호 교수가 2011 년 한국복음주의 학회에서 한국문화를 진단하며 유교와 샤머니즘 아래 형성된 흥미로운 한국 특유의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제시했다.<sup>11</sup>

첫번째 특징은 신과의 인격적 관계의 부재이다. 기본적으로 유교적 샤머니즘 에는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운행하는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초월적 신적 존재가 있지만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두번째 특징은 내세사상의 부재이다. 유교적 샤머니즘은 현세에 모든 중심이 놓인다. 그래서 현세를 떠난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은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종교적 신앙에서 막연한 초월자에게 현세의 문제와 필요를 아뢰고 열심과 노력을 통해 성취해 가는 형태를 나타내게 하였다. 손교수는 결과적으로 ‘인격적 신이 없기에 내면을 살피는 감시자가 없고 그래서 내 속 마음과 겉이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내세가 없어 죄를 벌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기에 오직 이 세상에서의 입신 양명 만이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었다 고 분석한다<sup>12</sup>

복음의 상황화 과정에서 그 완성도는 행동양식을 넘어 세계관까지 이르러야 한다. 유교적 샤머니즘을 통해 형성된 이러한 한국민의 세계관은 충분한 복음의 상황화를 통한 세계관 변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대로 기독교 신앙과 혼재 되어 남아 있게된다. 사실 사회적 문화적 환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해석하고 수용하여 신학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핵심가치와 상충되어 개혁과 변화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앞서 제기된 두 가지 특징은 한국 교회 외적 성장에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 특별히 샤머니즘은 현세의 행복과 번영을 목적으로 하며 현세적인 성공을 늘 추구한다. 이러한 특징은 그대로 한국 기독교 안에 남아 현대 한국 교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 교회는 공식종교 차원에서는 교리적 내세주의 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민간종교 차원에서는 현세적 기복주의 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양면성을 갖게 된 것이다.<sup>13</sup>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는

---

<sup>11</sup> 손봉호 (2011) 한국복음주의 학회 57 차 정기 논문 발표회

<sup>12</sup> 손봉호 (2011)

<sup>13</sup> 안점식 p 28

사회적 참여 보다는 초자연적 영적 세상을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오순절 운동의 영적전쟁, 기도, 은사주의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폭발적 교회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과의 인격적 관계 부재라는 또 하나의 특징이 함께 작동 하면서는 결과적으로 자신학화에 있어서는 부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신과의 인격적 관계 부재는 늘 신과 나를 연결해줄 ‘영적 매개’의 역할을 요구하게 된다. 한국 사회 전통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속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개개인이 스스로 인격적인 관계맺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연결해 주는 존재가 늘 필요했고 영적 매개자는 실제 역할 여부를 떠나 상당히 큰 영적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특별히 삶의 어려움 속에서는 중요한 선택 속에서는 절대적 의존의 대상이 되어 왔다. 상당한 정성과 물질적 헌납을 감당 하면서 까지 현세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국 기독교에도 이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성도 개개인이 성경과 성령 안에서 복음의 상황화와 내면화를 이루어 가며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 성장하기 보다는 성직자 도는 은사자라는 나와 신의 중간매개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개념설계 역량보다는 실행역량이 더 뛰어나고 친숙한 한국인들은 스스로 묵상하고 생각하며 복음을 상황화 내면화 해 가기 보다는 영적 매개자의 요청과 지시의 범위 안에서 열심히 신앙을 수행해 내는 모습이 최선의 신앙생활처럼 여기게 되었다. 진정한 복음을 전했음 에도 다시금 유대적 율법주의 영향아래 ‘다른복음’(갈 1:10) 을 따라갔던 바울의 눈에는 한 없이 어리석게도 (갈 3:1) 퇴보한 갈라디아 교인들 처럼 이제 까지도 너무도 많은 한국의 교인들은 유교적 샤머니즘의 영향아래 놓여 있다고 할 수있다. 이러한 환경은 목회자의 권한과 권위가 중세 유럽의 교회 성직자들을 그것을 뛰어 넘을 만큼 지나치게 커지고 집중되어 목회자의 생각과 요구가 곧 하나님의 것과 같이 전달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개인과 개교회 차원에 머물지 않고 고도성장의 시기를 거치며 한국 기독교 전반의 상황으로 확산 되었고 기독교 가치가 정의해야 나가야 할 대상인 교회와 성직자가 기독교 가치를 정의해 가는 상황으로 역류하게 되었다.

### 3. 선교사들의 제한적 영향력과 자신학화 가능성 후퇴

한국교회의 선교적 열심과 열정은 세계 선교 무대에서도 귀감이 되고 있다. 고도경제 성장시기에 실행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보다 빠른 성장을 경험한 한국사회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도 미전도종족 운동이 선교의 지배적 패러다임 이었던 20 세기 중후반 부터 교회성장을 통해 생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선교사를 다양한 국가에 파송하는 결과를 일구어 냈다.<sup>14</sup> 국제선교동원 현장에서 경험한 타문화 선교사로 갖출 소양과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결코 세계 선교 무대에 이처럼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국교회의 열심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선교는 시대와 상황을 따라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다.

외적으로 나타난 한국 선교의 업적 이면에 두 가지 오래 잠재 되어온 과제가 이제는 제법 가시적 이슈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첫째, 교회와 파송 선교사의 관계이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 하는 장면을 접한다.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안수하고 그들을 보낼 뿐 아니라 함께 할 것을 서약했다.<sup>15</sup> 크리스토퍼 라이트 (Christopher Wright) 는 선교사를 파송함에는 공동체가 두 가지 신실함을 가져야 하는데 한 가지는 진리로서 전파될 복음에 대한 신실함과 다른 하나는 함께 파송할 형제 자매에 대한 신실함으로 이를 통해 함께 가고 보내고 후원해야 한다고 했다.<sup>16</sup>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신실한 공동체들도 있지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한 열심의 과정에서 양산된 선교사들은 타문화 현장 사역자 이고 파송교회는 재정적 지원을 감당하는 후원자로서 관계가 일반화 되었다. 선교사의 사역소식을 담은 기도편지는 보고서가 되어가고 선교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재정적 필요를 마주하는 선교사로서 특별히 교회내 선교 정책 결정권자들과 한국교회 상황

---

<sup>14</sup> KWMA (2020) 2019 년 12 월 기준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 수 2 만 8,039 명 사역 국가는 171 개국

<sup>15</sup> 사도행전 13:2-4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sup>16</sup> 크리스토퍼 라이트 (2013) 하나님 백성의 선교 pp 324-328



안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자연스러운 사역 공동체 관계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자신학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선교사의 제학적 역할이다. 선교사는 중요한 자원이다. 단순히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만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복음 외에 모든 것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동시에 복음의 가치를 심어가는 과정을 수행하며 가지게 되는 이해는 자신학 과정에 중요한 동력이 된다. 폴 히버트는 선교사들은 사역의 특성상 신학적인 숙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며 데이빗 보쉬는 바울이 기독교의 첫 변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 첫 번째 선교사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복음이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을 때마다 부딪쳐 생겨나는 신학적, 목회적 난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루다 보면 신학화 작업이 활성화될 수 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타문화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사들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 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sup>17</sup> 사무엘 에스코바는 선교사들이 선교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서 배울 때 그들을 파송한 자국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 줄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돌아 오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 비교 안목을 가지게 되며 복음과 문화의 구분 능력을 배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8</sup>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가능성은 이미 신학교육을 마친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의 상황화 과정에서 경직된 태도로 포용성이 현저히 낮아지기도 하고 그 과정을 건강하게 수행해도 앞서 언급한 파송교회와 관계성 안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한국교회는 1950년대 이후 에큐메니칼 운동의 영향을 받고 서구신학을 보편신학으로 이해하며 여과없이 수용하면서 어느덧 목회와 선교를 엄격히 구분하는 문화가 정착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재정적 제도적 후원을 담당하는 교회가 수평적으로 목회 전반에 선교사가 나눌 수 있는 신학적 성찰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다양한 문화에 파송해 왔지만 정작 복음의 상황화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공동체의 자신학화 과정에 크게 기여할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세계 역사 속에서

---

<sup>17</sup> 변진석 (2012) 한국교회의 자신학화(self-theologizing)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 선교사의 잠재력 분석; 선교연구-67 호

<sup>18</sup> 변진석 (2012) p 6

복음만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 뛰어들어 살아본 선교사들은 교회가 자신학의 과정을 걸어가는데 있어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교회 현상에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교회가 선교현장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4. 한국 선교사들의 출구전략 부재

성공회 선교사였던 롤랜드 앨런(Roland Allen)은 그의 중국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며 서구선교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특별히 서구 교회와 선교사가 선교지의 교회들을 주도하는 가운데 선교지 교회들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토착성의 발현을 저지하고 있다는 점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한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고 많은 영역에서 토착교회에 자유를 허락한 점을 주목한다<sup>19</sup> 그에 따르면 사도바울은 새로 설립된교회에 복음적 가르침이 계속되도록 하는 단순한 시스템, 즉 두 가지 성례(세례, 성만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주요 사실들에 대한 전승(tradition) 및 구약 성 경만을 남겨두고 떠났다<sup>20</sup> 그에게 서구 선교사들이 오랜동안 영향력을 행사하며 서구교회를 그대로 이식한 것과는 달리 바울은 주요 선교지에 짧게 체류함으로 보다 복음이 상황에서 역동적으로 뿌리 내리는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선교사의 출구전략은 선교의 환경변화에 따라 급작스럽게 선교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소명을 따라 여러 가지 선교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교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으며, 향후 하나님의 선교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계승하는데 유익한 길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1</sup>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이상적인 선교사의 출구전략에는 자신학화 과정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sup>19</sup> Allen, Roland. 1962. Missionary methods: St. Paul's sorours? Grand Rapids, MI: Eerdmans. (한국판. 바울의 선교 방법론. 도서출판 베다니).

<sup>20</sup> 변진석 (2012) 한국교회의 자신학화(self-theologizing)에 영향을 줄수있는, 한국 선교사의 잠재력 분석; 선교연구-67 호

<sup>21</sup> 남정우 (2012) 한국선교 출구 전략에 관한 소고 ; 복음과 선교 제 20 집 4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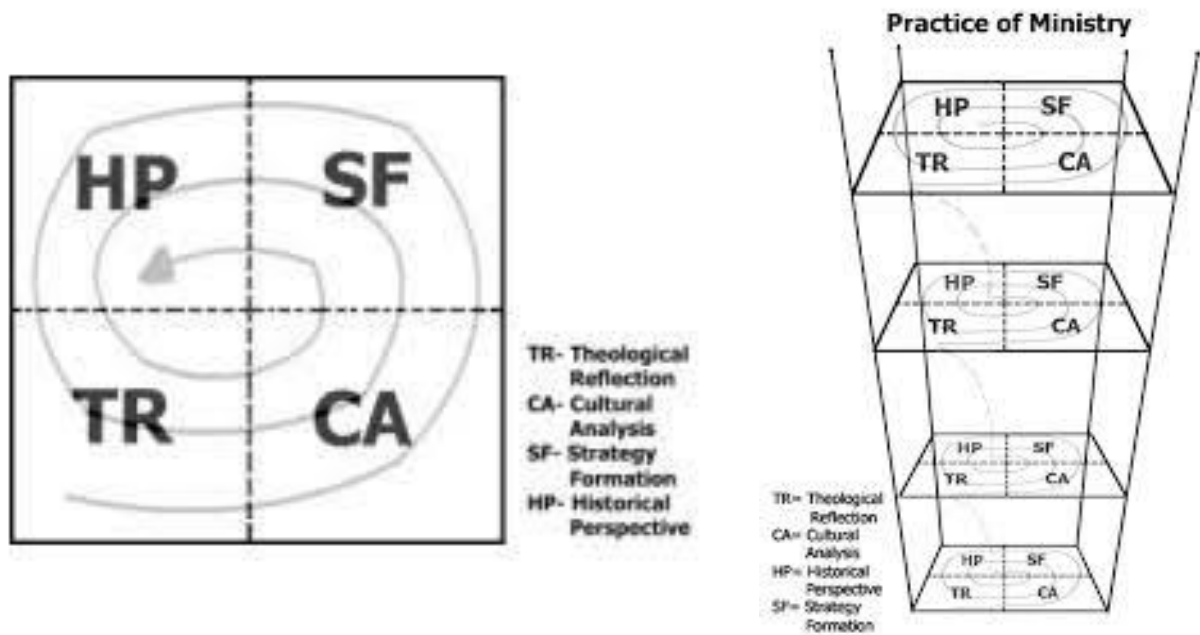
선교지 출구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을 남긴 사람은 헨리 벤(Henry Venn) 이다. 그는 삼자이론의 기초가 되는 선교철학을 제시 했는데 선교지의 사역은 1) 복음전파와교회설립, 2) 선교와 식민주의의 결탁을 철저히 비판하고 배격하며 3)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여 자치하는 토착교회가 되게 하는 일 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실제로 영국 성공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지인 청년 사무엘 아드갓 크로더(Samuel Adgat Crother)를 나이지리아최초의 감독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이와 더불어 영국성공회 선교부가 실천해야 할 3 단계 선교전략을 제시 하였는데, 그것은 단계 1: 현지교회 설립 즉시 지도자 세움 (자치), 단계 2: 현지교회로 하여금 목회자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함(자급), 단계 3: 지역교회 목사들과 평신도 대표들 중심의 협의체 구성'이라고 하였다.<sup>22</sup> 사실 이러한 삼자원리는 이제 보편적 기준이 되었지만 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선교지도 많다. 선교사는 이양의 단계를 조력자 세움정도로 대치 하고는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결국 선교지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선교지에서 건강한 출구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을 방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삼자 원리에 폴 히버트가 강조하며 추가한 네번째 원리인 자신학화는 출구전략의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 자신학화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지인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자신학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돕기는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한국의 목회적 상황과 문화가 선교지로 유입되어 또 다른 일방적 선교를 진행하기도 한다. 선교사 자신도 자신학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지인들의 자신학 과정을 도울 수 없고 이는 선교사가 선교지를 이양하고 떠나는 출구전략을 세우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선교지의 현지인들은 외부인으로서 선교사에게 의존적이고 선교사는 근본적인 이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 자신학의 역동성 회복: Missional Helix 중심

---

<sup>22</sup> 남정우 (2012) pp 44-45

갈린 반 린넨 (Gailyn Van Rheenen)은 Missional Helix 라는 이론을 통해 선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신학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가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 참조) <sup>23</sup>



**Missional Helix** 의 모델은 한 사이클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환경에서 먼저 신학적 조명 (Theological Reflection) 이 일어난다. 해석이 가능한 것과 수용이 쉽지 않은 요소등 다양한 질문과 생각을 일으키는 단계이다. 다음은 문화적 분석(Cultural Analysis)으로 내적 외적으로 제기된 질문들을 토대로 놓여진 상황과 환경을 다양한 틀을 통해 분석한다. 다음은 전략 수립 (Strategy Formation)으로 분석을 바탕으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사역적 접근을 설계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사적 관점 (Historical Perspective)로서 복음의 상화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세워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한번의 사이클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적 관점은 시간의 흐름속에 주어진 환경에서의 신학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금 환경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이클의 첫 단계인 신학적 조명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의

<sup>23</sup> Dr. Gailyn Van Rheenen Missions: Biblical Foundations and Contemporary Strategies chapter 13 (Zondervan/Harper Collins).

사이클이 나선구조 (Helix)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Missional Helix 라 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신학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 쉽게 보여준다. 이러한 순환과정이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신학적 경직으로 인해 상호작용이 제한되면 순환과정이 방해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자신학화의 과정이 원활한지 원활하지 않은지를 가르치게 된다. 한국교회 한국 선교의 현장에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

## 나가며

한국교회는 고유의 실행역량을 동력으로 한국사회와 함께 급속히 성장해 왔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내면에는 다양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또한 그로 인해 급격한 변환 환경에서 교회 사역도 선교사역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과 그 원인들도 살펴보았다. 로잔 언약의 신학적 기초를 담당한 존 스토틀은 현대 기독교를 우려하며 '깊이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sup>24</sup> 한국 교회 한국 선교의 '깊이 없는 성장'을 점검해야 하는 때이다. 선교동원 사역자로서 방문하는 나라들에서 발견하는 아쉬움은 선교사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선교 보다는 교회의 존립과 성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선교에 관한 담론을 시작하면 어김없이 그들은 가난과 훌륭한 인적 자원이 없는 이유를 들어 아직은 아니라는 입장을 늘 이야기 한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선교는 충분한 자원들이 충족되어야 했던 모델이었던 것이다.

자신학화 과정이 없이 외래 종교로서 외부인 사역으로 막대한 자원과 방식을 동원해 일군 일들을 정작 현지인들은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기 이전에는 이양 받을 수 없는 일로만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한국 사회가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개념설계 역량'을 키워가야만 미래에 한국 사회의 자리가 있듯이 한국교회 한국선교도 '복음의 상황화' 과정으로 '자신학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선교적 상상력과 개념설계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 농산물을 가져다 주는 것도 귀하지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을 함께 나누며

---

<sup>24</sup> 김성건 (2012)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종교사회적 고찰 pp 19-23 “오늘의 기독교의 상황은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이고 불안한 패러독스를 지니고 있다. 어떤 지 역에서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깊이 없는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마디로 교회는 적절한 제자도가 결여되어 있다.”

그들의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열매를 얻도록 돕는 것이 더 필요하고 귀한 것임을 생각해 본다. 선교는 유통업이 아닌 씨를 뿌리고 그 땅에서 거두는 농업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의 현장에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교회 한국선교를 늘 기대한다.

### <토론질문>

1.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정에 있어서도 개념 설계 역량보다는 실행역량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자신학이 보다 요구하는 것은 개념설계 역량이라는 면을 고려할 때 신학교 교육과 선교단체 훈련 과정그리고 개인적인 준비에 있어서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급변하는 세계 선교 환경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보다 집중해야할 선교현장에서의 역할과 한국교회 안에서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